

홍콩 루머와

터키베스의 왕국 타이랜드

三陽타이어工業株式會社

輸出課長 尹 元 求



홍콩 루머

10月5日 홍콩 구룡(Kowloon)半島에 내렸다. Kaitak 國際空港의 滑走路는 마치 航空母艦의 滑走路인양 防波堤模樣으로 水陸을 잘 活用한 것 같았다. 홍콩은 地理的으로 구룡半島와 홍콩섬(Hong Kong Side)으로 構成되며 4백만이 넘는 人口가 1천평방키로의 비좁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은 최대한도로 立體的으로 利用되는 느낌이 든다. 홍콩섬의 傾斜도가 거의 45도를 넘을것 같은 道路가 펍 많이 눈에 띈다. 2층버스, 2층전차 그리고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해주는 Stak Ferry 2층객선 이런것 들은 空間까지를 利用해 보려는 人間努力的 表現이 아닐까.

自由航制度에 의한 中繼貿易으로 부터 發展한 홍콩은 오늘날 東南亞에 있어 가장 重要한 商業中心地의 하나로 君臨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世界의 Shopping Center 라고 불리워지듯이 世界의 商品이 많으며 물가가 싼 곳으로 심지어 都賣價格보다 小賣價格이 더 싸다고 하는 말까지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일인당 國民所得(GNP)이 美貨 約 5百弗로 아시아 지역 중 제4위인 홍콩 국민으로서의 生活費면 充分한 것이며 따라서 嗜好라면 比較的의 奢侈하며 外形에 置重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덧붙혀 90% 이상이 中國系인 홍콩국민 가운데는 中共産의 支援條件을 받아드려 재미를 보려는 物인정한 일부 商人에 의해 一般市場을 흐려가며 浸透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홍콩의 食品은 거의 中共에 依存한다고 하며 中共으로 부터의 輸入比重은 대단한 것으로 全體輸入의 20% 程度를 점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배를 하나 먹는때도 中共의 어느地域産이라는 말을 들으니 우리 反共國民으로서의 理解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홍콩섬의 빅토리아 산상을 연한 Cable Car 로 올라 남으로 내려 오자면 富有한 英國 사람들의 別莊이 즐

지어 있는가 하면 저건너편 언덕위엔 커막지 같은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다. 판자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特産物인줄 알았던 나의 思考方式이 뜻하지 않은 이번 見聞을 통해서 달라졌다.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中華民國 國旗가 수없이 펠럭이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그 같은 極端의인 貧富의 對照는 역시 좋게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일중 서글픈 같은 感懷를 느끼게 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더구나 자기땅에서 사는 本土人은 그 生活이 이룰때 없이 悲慘한 반면 남의 나라에 와있는 外國人의 生活이 그렇게 華麗하다는건 일중 矛盾이며 主客이 顛倒된 그런감을 안겨다 주었다. 一部 住民의 艱難은 地上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붙여 水上族이라하는 사람들의 生活 또한 기가막힐마 있었다. 물위에 뜬 작고 낮은 배(Junk)에서 태어난 그들은 거기서 자라고 다시 그 Junk 위에서 죽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그들에게도 그들만이 갖고 느끼는 人生의 기쁨 같은 것이 있을 줄 아나 역시 서글픈 人生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포리에 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갖가지 想念들 그러나 이제 貧富의 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矛盾이 엇갈린 世界 三代美航中の 하나인 이 홍콩을 떠나 새로운 旅路에 올라야만 했다. 한고장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地方의 實情이 確實치 않은데 하물며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이에게는 알고 보잘것 없는 見識밖에는 없는 것이며 다만 본대로 들은 데로의 現實만이 第一 큰 印象으로 머리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본인의 旅行에 아낌없는 後援과 聲援을 해주신 여러분들과 同僚들의 誠意에 感謝하며 조금이나마 報答하는 뜻에서 몇자 옮겨놓는 것입니다.

터키베스의 왕국 타이랜드

10월 17일에는 泰國上空을 날고 있었다. 넓적넓적한 수전(水田)이 끝없이 펼쳐있는 平野 그저 平野한 뿐이다. 自然의 惠澤을 담뽕받은 世界的인 穀倉地지인

태국의 面積은 우리나라의 大略 2 배반이요. 人口는 約 3千萬 程度의 나라이며 게다가 三毛作의 쌀 生産이 可能하나 三毛作을 다하면 남은 쌀의 貯藏費가 많이들어 一毛作만 하는데도 世界 쌀 輸出量의 30%를 차지한다니 거짓말 같은 事實이다. 방콕市內를 들어갈때 따라 都市가 꽤크고 道路가 比較的 시원시원한데 놀라우나 그 보다는 우리에게는 찌는듯한 더위에 그만 익는 것만 같다. 이곳은 잘아는 바와 같이 상하(常夏)의 나라다. 國土全體가 熱帶多雨의 전혀 단조한 氣候에 속해있으며 언제나 더웁기 때문에 그들의 動作이 그렇게 느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춥다는 12월의 날씨례야 섭씨 26도고 第一 더운시기는 四月로 40도가 넘는다 하니 알만한 일이다. 이같이 더운가운데 豐饒한 까닭인즉 방콕附近의 海拔은 겨우 1m 내지 2m의 低溫地帶이며 北部泰國이라야 겨우 44m에 지나지 않으며 每年 定期的으로 六月에서 九月間의 雨季에는 메남강(mae nam) 강물에 잠기었다가 물이 빠진후에는 肥沃한 耕地로 되어 泰國의 穀倉地帶로 된다는 것이다. 韓國戰爭에 參戰했던 軍人에게서 무얼좀 들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것 같으며, 그리고 이들은 한번도 자기 나라를 남에게 빼앗긴 일이없이 獨立을 維持해온터이라 自尊心이 매우 강한 것도 首肯할 수 있다. 그들은 임버릇 처럼 방콕이 아시아의 中心都市라고 큰소리를 치고있는 것이다. 이를 들어 보면 地形的으로 인도지나만도의 中央部에 位置하며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中心에 있다는 것이다. 信仰은 自由이겠으나 佛敎가 國敎의 地位를 점하고 있으며 國王은 憲法에 의해 佛敎의 守護者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泰國人의 佛敎信仰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男子는 거의 全部가 한번 佛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社會的 資格이 되고 있다. 佛敎徒는 全體의 約 94%를 이루고 있다하며 自然

히 이 나라에는 寺院이 많기마련이며 事實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의 절과는 달리 華麗하고 燦爛하고 雄壯하기 그지없다. 지붕 부티가 금빛에 가까운 눈부신 주황빛이며 도처에 금박을 칠하여 動的이며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언제인가 이곳 泰國은 사람수 보다는 절이 더 많다는 逸話가 세삼생각난다. 그 만큼 절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러한 칠져한 佛敎國임에도 근자 터키베스가 輸入된 模樣인데 韓國에서는 想像하기 어려운 程度로 대단한 것이며 企業化라기보다는 一般化 내지 大衆化한 느낌을 준다. 거기애다 방콕은 國際航路의 通路(Junction)라 旅路의 外國人이 많은 關係로 外貨獲得을 目的으로한 터키베스가 또한 發達한 것 같으며 所謂 시암아가씨들의 Massage make love 라고 건네는 소리는 아마 이곳을 訪問한 사람이면 누구나 共感할 수 있을 것 같다.

끝으로 단 몇푼의 外貨가 아쉬운 우리네 處地에서는 東南亞에서 찾아하는 比重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다음인 태국은 가뭇게 다룰수 없는 對象임에 틀림없다. 허나 이나라도 역시 國內産業 育成保護策 내지는 工業化 輸入抑制다는 後進國의 共通된 코스를 밟고있어 漸次 進出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예로 經濟開發 第二次 五個年計劃이 66年 以降 71年 까지로 設定되어 있다. 한편 約 3억 달러의 貿易逆調 狀態에 있는 日本을 牽制하기 위해서나 其他 國間의 貿易協定 등으로 인하여 貿易多變化 政策을 施行하는 것으로 믿어지며, 한편 泰國軍은 越南戰의 終結이 다가 짐에 따라 著實하게 軍備를 強化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우리의 큰 市場임에 틀림 없으며 자칫 하다가 내리막 길이 될 우리의 輸出이 오히려 더 뻗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靑信號가 되길 바라면서 끝맺을가 합니다.

